

제 1 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성명	수험 번호
----	-------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제 별명이 무엇인가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민달팽이죠. 그래서 오늘은 민달팽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보통 민달팽이 하면 달팽이 앞에 ‘민’자가 붙어 둘이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에 반해 민달팽이와 달팽이의 차이점에 대해 아시는 분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먼저 이에 대해 설명하고, 민달팽이의 습성, 그리고 민달팽이를 사육하는 방법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달팽이와 달팽이의 생김새부터 보시죠. (㉠화면 제시) 달팽이는 등에 달팽이집이라고도 부르는 껍각이 있는 반면, 민달팽이는 껍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 없는 것은 아니고, 머리와 가까운 부분에 작게나마 흔적처럼 있다고 합니다. 민달팽이는 껍각이 없기 때문에 수분 조절이 달팽이에 비해 어려워 외투막이 더 두껍고, 더 많은 양의 점액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이 점액 덕분에 천적들을 쫓아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 파리지옥에 걸려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껍각을 버림으로써 얻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지 않나요?

다음으로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어떤 환경 같아 보이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습하고 어두침침한 환경이죠. 아까 말씀 드렸드시피 민달팽이는 껍각이 없어 수분조절이 어려워 이러한 축축하고 어두운 곳에 주로 서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야산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지난번 교내텃밭에서 수확한 상추에 붙어있던 민달팽이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민달팽이는 주로 풀을 먹지만, 버섯이나 동물 사체도 먹는 잡식이라 자연의 훌륭한 청소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 질문이 있네요. (㉢질문을 듣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달팽이는 달팽이 못지않게 농가에서 해충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카페인과 점액이 섞이면 입맛이 떨어지는 민달팽이를 커피를 사용해 쫓아내거나, 민달팽이가 구리 이온을 싫어하는 점을 이용해 민달팽이가 출몰하는 곳에 동전이나 구리선 몽치를 놔둬 쫓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이 되었을까요?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네 그럼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달팽이만큼 많지는 않지만, 민달팽이를 귀엽게 여겨 애완 동물로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달팽이는 보통 부드럽고 수분이 많은 야채를 좋아하며, 야생의 경우에는 버섯도 잘 먹지만 사육된 민달팽이는 버섯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껍각이 없는 만큼 분무기로 자주 물을 뿌려주고, 인간의 체온도 민달팽이에게는 뜨겁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손 위에 올리거나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제 별명인 민달팽이가 어떤 생물인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화면 제시) 민달팽이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나무위민달팽이 민달팽이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위 발표에 활용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대조를 통해 두 대상 간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발표 진행 순서를 안내한다.
 - 청중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질문을 하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다.
 - 청중이 특정 대상의 개념을 파악하도록 대상의 정의를 제시한다.
 -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한다.
- 다음은 발표자가 보여 준 화면이다. 발표자의 시각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화면1]은 달팽이와 민달팽이의 서식환경이 다름을 설명하기 위해 ㉠에 제시하였다.
 - [화면1]은 민달팽이가 달팽이보다 분비하는 점액의 양이 더 많은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에 제시하였다.
 - [화면2]는 민달팽이가 천적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자연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에 제시하였다.
 - [화면2]는 민달팽이의 먹이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에 제시하였다.
 - [화면3]은 달팽이에 관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설명하기 위해 ㉣에 제시하였다.
- 위 발표의 흐름을 고려할 때, ㉢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농가에서 민달팽이를 해충으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민달팽이의 점액을 사용한 제품은 없나요?
 - 농가에서 민달팽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나요?
 - 민달팽이도 달팽이처럼 농가에 피해를 입히나요?
 - 민달팽이가 싫어하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4~8] (가)는 교내 신문 기사의 일부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상대 후보 비방 난립하는 선거 포스터...규정 개선 시급

이번 달 25일에 실시되는 제17대 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의 선거포스터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학생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회 선거 기간 각 후보 별로 선거포스터를 제작하는 것은 제7대 학생회 선거 때 부터 이어져 온 본교의 전통이다. 학교 주변 주민들도 와서 볼 정도로 유쾌한 포스터들이 많아 호평을 받고 있다.

본교 통계 동아리가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약 76%의 학생들이 선거포스터에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했으며, 약 53%는 선거포스터의 제작과 관련한 규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포스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 약 87%는 이러한 내용들이 학생들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다수의 학생들이 선거포스터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학년생 최 군은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을 알리려는 시도는 좋지만, 교내민주주의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는 성숙한 태도로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지가 이번 학생회 선거포스터를 모두 입수해 분석한 결과, 후보자 9명 중 7명의 선거포스터에서 특정 후보 비방이 9건, 비속어 사용이 5건, 부적절한 사진 사용이 3건으로 확인되었다. 선거포스터에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한 후보자들의 선거본부는 포스터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본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포스터 제작 규정에 지적 받은 부분과 관련한 조항은 없어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본교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히 선거포스터 관련 규정 개선안을 준비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학생1 : 자, 시간이 없으니 각자 생각해 온 것들 바로 이야기해 보자.

학생2 : (작은 목소리로) 정말 미안해. 수행평가 때문에 너무 바빠서 차마 준비를 못했어.

학생3 : 그럴 수 있지. 이번 주에 수행평가가 많았잖아. 여기 선거포스터 자료야.

학생2 : 고마워. 얼른 보고 대화에 참여할게.

학생1 : 나는 교내 신문에서 지적한 대로 타 후보 비방, 비속어 사용, 부적절한 사진의 사용이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 같은데, 혹시 더 생각한 거 있어?

학생3 : 포스터들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글자 크기가 제각각이더라고. 내용에 따른 글자 크기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여.

학생2 : 굳이 왜? 각자 잘 보이고 싶은 내용이 있지 않겠어?

학생1 : 만약 지금처럼 글자 크기와 관련한 규정이 있지

않으면, 후보자 본인이 숨기고 싶은 정보는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로 쓰고 알려지고 싶은 정보만 크게 써서 학생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어.

학생2 : 그렇구나. 내 생각이 짧았네.

학생3 : 눈에 잘 띄도록 여러 가지 색을 현란하게 사용한 선거포스터도 있더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후보자와 공약을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더 좋은 디자인의 선거포스터에만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

학생2 : 그러면 색의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만들고 후보자들이 선거포스터를 제출한 후에 검토하면 되겠다.

학생1 : 좋은 생각이야. 나는 사진 사용을 아예 금지할 필요가 있어보여. 후보자 얼굴 사진보다 친한 친구들과 놀이동산에서 찍은 사진을 더 크게 넣은 포스터도 있더라고.

학생2 : 물론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후보자 본인의 활동 경력을 보여준다거나 공약과 관련한 사진이면 괜찮지 않을까?

학생1 :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러면 후보자 본인이 포함된 적절한 사진을 넣도록 안내하고 크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학생3 : 현재 선거포스터 종이 크기가 B4여서 내용을 적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더라고. A3 크기의 종이를 쓰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

학생1 : 그러면 의견이 어느 정도 모인 것 같으니, 선거 후보자들에게 보낼 안내문을 어떻게 쓸지 이야기해 보자.

학생2 : 먼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규정들을 적고, 기타 권고사항을 적으면 될 거 같아.

학생3 : 권고 사항에는 뭘 써야 하지?

학생1 : 일부 포스터의 공약 내용이 줄글로 적혀 있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어. 문단을 나누고 축약해서 적도록 권고하면 좋겠어.

학생2 : 참, 공약과 경력의 글자 크기를 같게 할 필요도 있을 거 같아. 이진 규정 개선안에 포함해야겠네.

학생3 : 나는 학생증에 있는 사진만 후보자 사진으로 사용하도록 하면 좋겠어. 선거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학생1 : 그러면 여러 제한을 두는 대신 선거포스터를 여러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후보자들도 어느 정도의 불편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2 :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규정에 포함해서 안내해야겠네.

학생3 : 추가된 선거 규정과 권고사항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문에 선거포스터 예시 그림을 그려서 첨부하면 좋을 거 같아. 안내문 초안 쓰면 참고해서 그려서 보내줄게.

학생2 : 오늘 논의한 내용은 내가 정리해서 둘한테 보내줄게.

학생1 : 그래. 그러면 안내문은 내가 자료를 바탕으로 써 볼게.

4. (가)에서 활용된 글쓰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문단에서는 제17대 학생회 선거가 실시되는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 ② 1문단에서는 학생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원인을 밝힘으로써 글의 주제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 ③ 2문단에서는 교내 동아리에서 시행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 ④ 2문단에서는 학생들이 사안을 받아들이는 시선을 보여주기 위해 인터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 ⑤ 3문단에서는 관계자의 답변을 인용해 상충하는 주장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5. 다음은 (가)를 읽고 신문 동아리 회원들이 나눈 대화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4 : 내가 쓴 기사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을까?
 학생5 : 2문단에서 설문 조사 자료를 인용할 때 빠뜨린 게 있어.
 ㉠

- ① 설문 조사 자료를 인용하고 있음을 밝히지 않았어.
- ② 설문 조사를 한 주체와 응답 대상을 밝히지 않았어.
- ③ 설문 조사의 결과가 시사하는 점을 밝히지 않았어.
- ④ 설문 조사의 응답 결과를 순위대로 밝히지 않았어.
- ⑤ 설문 조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밝히지 않았어.

6.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학생2’는 ‘학생3’에게 의문을 표한 후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2’는 ‘학생1’의 설명을 듣고 ‘학생3’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2’는 ‘학생1’에게 공감을 표한 후 ‘학생1’의 제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1’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의 세 번째 발화에서 ‘학생2’와 ‘학생3’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각각 ‘학생1’과 ‘학생3’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7. 다음은 신문 동아리 부원들이 (가)를 읽고 나눈 대화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원1 :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전체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개선 방안이 있을까?
 부원2 : ㉠ 로 바꾸는 것은 어때?

- ① ‘설문에 따르면 대다수의 학생이 그 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답했다.’

- ② ‘그러나 요즘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부착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 ③ ‘학생회 선거 시기 선거포스터 제작은 교내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을 받는다.’
- ④ ‘교내 행사로 자리 잡은 만큼 더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⑤ ‘이제는 교내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 길가에도 부착해 지역 주민이 즐기는 행사로 발돋움해야 할 필요가 있다.’

8. 다음은 ‘학생1’이 만든 선거포스터 관련 안내문이다. ㉠과 ㉡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거포스터 관련 안내문-○○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장 김◇◇입니다. 선거포스터 관련 규정의 추가사항과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래는 추가된 규정과 권고사항을 반영한 선거포스터의 예시 그림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에는 선거포스터에서의 색 사용에 관한 규정이 설명되어 있겠군.
- ② ㉠에는 후보자의 공약과 경력 내용의 글자 크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겠군.
- ③ ㉠에는 두 가지 이상의 선거포스터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겠군.
- ④ ㉡에는 후보자의 공약과 관련된 사진 예시가 삽입되어 있겠군.
- ⑤ ㉡에는 후보자의 학생증 사진 예시가 삽입되어 있겠군.

[9~11] (가)는 글쓰기를 위한 학생의 생각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학생의 생각]

며칠 전부터 속이 안 좋았는데, 유산균을 먹고 나니 속이 편해졌어. 유산균이 좋다고만 알고 있지, 자세히 아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 교지 원고를 모집하던데, 유산균에 관한 글을 써 봐야지. ㉠유산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유산균의 효과와 ㉢유산균을 섭취하는 방법을 제시해야겠어.

(나) [학생의 초고]

제목: ㉠ [A]
 많은 학생들이 유산균을 활용하여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섭

취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유산균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떤 이유에서 우리의 몸에 이로울 것인지 등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유산균이란 발효의 결과물로 유산이란 물질을 주로 생성하는 그람양성세균으로, 젖산균이라고도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유산균을 “충분한 양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907년, 러시아의 과학자 일리야 메치니코프에 의해 그 존재와 효능이 처음 알려졌다.

유산균은 우리 몸의 면역 조절과 감염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산균은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막아 면역력을 정상 수치로 조절하고, 아토피나 건선 같은 자가면역성 피부질환을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고혈압 등의 대사성 질환 억제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효과도 있으며, 뇌내신경물질 분비에 관여해 우울증 등에도 일부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다만 우리에게 이와 같은 효능보다는 주로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연구 결과로 뚜렷이 입증되지는 않았다.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 장까지 도달해야 하는데, 대다수의 유산균들은 위산 등의 강력한 소화 효소를 견디지 못하고 중간 과정에서 죽는다. 물론 죽은 유산균도 유익한 물질을 남기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만큼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유산균을 어떻게 섭취해야 좋을까? 먼저, 유산균을 정제된 영양제나 보충제 형태로 섭취할 시에는 위산이 활발히 분비되기 전 빈속에 먹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나, 식후 1~2시간 정도에 먹는 게 좋다는 주장도 있어 자신의 일정에 맞게 적절한 섭취 시간을 정하면 된다. 또한 요구르트와 김치에도 다양한 종류의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어 식품으로도 쉽게 섭취할 수 있다.

9. (가)의 ㉠~㉣을 (나)에 구체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유산균의 정의를 밝힌다.
- ② ㉠: 유산균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시기를 제시한다.
- ③ ㉡: 유산균 섭취 시의 효과를 나열하여 제시한다.
- ④ ㉢: 유산균의 효과가 예상과 같음을 제시한다.
- ⑤ ㉣: 영양제와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각각 설명한다.

10. 다음은 (나)를 읽은 교지 편집부장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A]를 작성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의 제목은 글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좋아. 글에서 언급한 통념과 다른 유산균의 효과를 활용해 쓰는 게 좋겠어.”

- ① 좋으라고 먹던 유산균, 몸에 해로운 점 더 많아
- ② 장 건강에 최고인 유산균, 어떻게 섭취할까
- ③ 유산균 섭취, 영양제보다는 식품으로

- ④ 장내 건강보다 면역력 향상에 더 좋은 유산균
- ⑤ 몸에 좋은 유산균, 너무 많이 먹으면 역효과

11. <보기>는 학생이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유산균의 효과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 조사 자료

(대상: 우리 학교 학생 458명)

㉠-1 유산균의 효과 (단위: %)		㉠-2 유산균 섭취 시간 (단위: %)	
장내 건강 증진	85.6	공복 시	73.4
면역력 상승	6.1	식사 직전	18.2
우울증 감소	3.1	식사 직후	2.4
대사성 질환 예방	4.8	식후 1시간 이내	1.4
기타	0.4	기타	4.6

㉡. 신문 기사

청소년 시기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유산균이 함유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 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집중력 향상에도 유산균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인터뷰 자료

나무위민달팽이 유산균공학연구소 김민달 박사는 “유산균은 넓게 보자면 유산균목의 유산균과 유산균속 세균들을 총칭하는 말이고, 좁게는 사람의 내장이나 구강 등에서 사람과 공생하는 유익균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유산균이 몸에 유익한 균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 ① ㉠-1을 활용하여, 유산균이 장 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3문단에 제시해야겠어.
- ② ㉡를 활용하여, 독자들이 유용하게 받아들일만한 유산균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3문단에 제시해야겠어.
- ③ ㉢을 활용하여, 유산균의 정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1문단에 덧붙여야겠어.
- ④ ㉠-2를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시간보다는 전문가들이 정한 시간에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좋음을 설명하는 자료를 4문단에 추가해야겠어.
- ⑤ ㉢을 활용하여, 통념과는 다른 유산균의 정의가 있음을 1문단에 밝혀야겠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